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 5:9)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5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다함께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27. 빛나고 높은 보좌와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십시오. 불의와 고통이 넘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넘치는 고통을 보며 “하늘도 무심하지” 하고 탄식하는 어느 여인의 혼잣소리를 들으면서,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성소(聖召)를 저버린 우리들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주시고 다시 한번 사랑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헛된 욕망을 따르느라 생을 탕진하고, 힘겨워 숨을 헐떡이면서도 참된 삶의 길은 한사코 거절하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우리 삶의 발걸음을 늦추고, 세미한 중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들어 당신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골3:9-10
인도자	
♠ 교 독 문	7. 시편 16편
다함께	
♠ 영 광 송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II. 윤정덕 장로	
사도신경	다함께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73.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다함께	
성경봉독	I. 마6:22-23
다함께	
II. 왕하2:7-14	김용진 권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수우미양가
김기석 목사	
II. 가장 큰 유산	김기석 목사

거둠의 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08. 주와 같이 되기를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시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오로지 주님 안에 참다운 휴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커지도록 자신을 낮추며 사십시오.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부름에 창조적으로 응답하는 사랑의 승리자들이 되십시오.

다 함 께 : 주님, 베드로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신뢰를 가득 담아 대답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주님을 사랑하고픈 우리의 열정을 아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기억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제2여선교회 주최예배	7월 기도의 밤
말씀 : 김기석 목사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홍 목사 김기석 목사	조병무 장로	인도자 정경례 집사

7월	영접위원	김철수	이용한	이호원	최종원	박홍재	안경숙
	헌금위원	윤석철	김준호	한상익	구성실	임정자	오성희

긍정적 에너지를 내뿜는 사람

이제 인류의 생존은 정신과 영혼의 철저한 방향전환에 달려 있다. 새 천년에는 100억에 이르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현재 선진산업국에 사는 8억의 사람들처럼 살기 원한다. 그러나 지구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행성이 아니다. 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미리 대비하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우리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변화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누구에게서 배울 수 있을까?

이천 년 전 나사렛의 한 젊은이는 이렇게 가르쳤다. 감탄하고 사랑하고 배울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예수가 원한 것은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새로운 삶이었다.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지만 모든 사람들의 소유욕을 만족시키기에는 부족한 곳이라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었다.

그의 근본 프로그램은 신뢰, 희망, 사랑이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은 우리가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무던 양심을 버릴 때에는 제 기능을 한다. 오늘날까지 20억의 인구가 이론상으로는 이 프로그램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떠한가? 20세기를 예로 들어보자. 세계전쟁, 핵무기, 자연 파괴의 세기에 사랑, 관용, 자비의 마음, 자연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이 프로그램은 서구 기독교권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은 생태운동의 전위로 나서지 못했다. 몇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는 이 땅의 운명에 거의 무관심하다. ‘피조물의 보존’에 대해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과 피조물이 그 발전 목표에 이를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을 거의 못하고 있다. 모두가 목표를 알고는 있다. 그러나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없다. 진리(참됨)는 우리의 실천이 있을 때 비로소 참이다. 예수는 말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8:32)

절망이 온 땅에 두루 퍼지고 새 천년의 시작을 전후로 그 절망이 더욱 커진 것은 기독교의 부정적인 인간관에도 그 원인이 있다. 교회는 지난 이천 년 동안 우리가 처음부터 죄인이었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본래 우리의 정신적 영적 가능성에 훨씬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올 때부터 원죄를 지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예수는 끝끝내 우리가 사랑받은 존재, 축복받은 존재라고 말했다. 교회의 전통이 말하는 죄와 죄책감의 사슬에 매이고 원죄와 악한 욕망이라는 짐에 눌린 사람들은 창조적인 활동, 구체적인 느낌으로 다가오는 삶의 기쁨이 있는 곳으로 나서기를 꺼리며, 피조물을 함께 지켜 나가는 일에 참여할 마음도 능력도 느끼지 못한다. 두려움이 그를 마비시킨다.

그러나 예수의 이야기와 비유에 나타난 생태적 이미지를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이해한 사람은 바로 그 이야기와 비유를 통해서 삶의 맛과 기쁨을 배우고 피조물과 그 미래에 대한 신뢰와 에너지를 계발해 나간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이천 년 전 예수가 정신적 생태학(a spiritual ecology)을 발견하고 그것을 직접 실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이러한 예수의 전략이야말로 새 천년을 위한 결정적인 생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교회는 벌 내리고 복수하고 화를 내는 가부장적인 하나님 이미지를 주로 가르쳤다. 그러나 예수는 철저히 긍정적인 하나님 이미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교회의 부정적 인간관은 희망 없이 주저앉은 인간을 낳기 십상이다. 반면 예수의 긍정적인 인간관, 모든 것을 품어 안아 사랑하는 하나님 이미지는 생동감과 신뢰와 희망을 북돋는다.

교회의 부정적 인간관은 긍정적 에너지를 차단할 때가 많다. 하나 예수의 가르침과 삶은 햇볕과도 같은 긍정적 에너지를 내뿜는다. 긍정적인 햇볕 에너지가 흘러 넘치면 우리 안의 생명력은 자립과 성숙을 이루고 사랑과 자유의 기운으로 넘치며 두려움마저도 극복하게 된다. 피조물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비로소 이 세상과 이 우주 안에, 그리고 모든 인간들에 깃든 신성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이 좋은 새 천년을 위한 정신적 생태학의 기반이다. 전 세계적 생태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우주적 차원의 정신적 생태학이 필요하다. 어두운 하나님 이미지, 어두운 인간 이미지와 결별하지 않으면 영적인 성장과 정신적 발전을 이룰 수 없다. 예수는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깊이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삶의 기쁨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다.

(프란츠 알트, 『생태주의자 예수』 중에서)

늙지 말고 익어가라

『논어』 위정편에는 나이에 따라 부르는 말이 달리 나온다.

15세는 학문에 뜻을 두는 나이라 하여 ‘지학’(志學)이라 하였고,
30세는 예와 악에 대해 뚜렷한 식견을 가지게 된다 하여 ‘이립’(而立),
40세는 사리를 알게 되어 남의 말에 미혹되지 않는다 하여 ‘불혹’(不惑),
50세는 하늘이 준 섭리를 알게 된다 하여 ‘지천명’(知天命),
60세는 듣는 대로 휘하다 하여 ‘이순’(耳順),
70세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 하여 ‘종심소욕 불유구’(從心所欲 不踰矩)라 하였다.

그러고 보면 “너는 언제나 철이 들거냐?” 하는 말은 어린아이들을 야단치고 훈계할 때만 쓸 말이 아니다. 오히려 정신없이 살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물어야 할 말이다. “철들자 망령”이라는 속담이 있는데 나는 과연 지금의 내 시간을 제대로 짐작하고 있는지, 때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라”는 말이 있다. 속이 빈 채 어영부영 나이만 먹는 허망한 삶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무게가 충실히 익어가는 삶, 철든 삶이란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방현복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장 로 :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이용한	윤석철
성가대장 : 이용한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 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박옥식 김철수 유영남 한완식 임정자 이용한 오성희 김종훈 안경숙
 김인걸 문영혜 김중수 이순정 김훈동 유경순 안종일 정현주 백승민
 박규석 박경선 김근종 정옥영 조문규 진정숙 김용길 최영혜 박영숙
 김 극 이은옥 박순희 고광송 이춘희 김성한 조영순 박홍엽 김용원

월정헌금:

장재영 김재영 정진경 허광식 임 영 정경례 박석희 조항미 이동천
 황경순 왕수명 최동운 박찬정 이경남 이희균 김영한 고숙이 조동길
 배부례 서재홍 박현우 이증자 박범희 권미정

감사헌금:

송남우 황경화 박성수 김애경 김성한 조영순 김용진 박효선 조항범
 오현정 홍순구 안홍숙 이봉배 박영희 정종삼 김홍기 김상태 박정숙

구도헌금:

김기석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베들레헴	윤 정 덕	정 경 례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에 베 소	이 순 정	한 선 희		
빌 립 보	최 중 원	이 형 숙		
가 버 나 움	구 성 실	안 홍 숙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두 란 노	안 종 일	정 현 주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속장·인도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2. **오후집회** : 제2여선교회 주최 예배입니다.
3. **기도의 밤** : 7월 7일(수) 오후 7시 30분에 모입니다. 기도의 기쁨을 맛보기 원하는 이들은 꼭 참석하십시오.
4. **냉난방비헌금** : 다음 주일예배에 냉난방비 헌금을 봉헌합니다. 정성껏 준비해주십시오.
5. **교역자회의** : 중구용산지방 교역자회의가 내일(5일) 우리교회에서 열립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맞추어주십시오.
6. **봉사** : 종묘 급식 봉사가 7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실시됩니다. 방학을 맞은 젊은이들도 많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7. **수양회** : 8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전교인 수양회 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주십시오.
8. **신앙실천** :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어야 할 말들이 너무 독해졌습니다. 싸늘한 비판과 비방의 말보다는,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몸과 마음에 침묵을 채워야 진실한 삶이 가능해집니다.

* 헌화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